

행정권한없어 계도에 그쳐

관 관리로 질서잡아야

김주현

〈강진군수협지도과〉

지역사회라는 여건에 제한을 받고,
행정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신용사업에 역점을 둔 협동조합에서
관리대행이란 현실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 군 관내 제1종어항인 마량항은 천연기념물인 가막섬과 앞에 보이는 완도군고금면이 인접, 조용한 아침의 어항의 갯내음과 비린내나는 물양장 주위에는 깨끗하고 잔잔한 물결이 마치 평화로움을 만끽하며 이른 아침 바쁘게 움직이는 어선과 분주한 어민의 전경은 풍요로운 어촌의 참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불법시설물의 증가와 잡상인의 무단점거, 오폐물의 방치등으로 어항의 본래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며 관리대행자인 저희 강진군수협이 어항환경계도와 물양장청소등 반복되는 협조공문시달 및 홍보계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어항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어항구역내 환경정비상태를 점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사회라는 여건에 제한을 받고, 행정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며, 신용사업에 역점을 둔 협동조합에서 관리대행이란 현실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어민들은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하고 자손만대의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하여 바다를 가꾸고 어항관리를 철저히 하며 살기좋은 어촌건설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

정부에서는 어촌을 살기좋은 정주권으로 개발 육성한다고 하지만 전시행정으로 소외감을 갖고 있는 어민조합원의 실정을 감안할 때 영세어민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타개책을 모색하여야 하며, 어민이 대접받고 바쁜 일손으로 분주하게 움직일 때 비로소 풍요로운 복지어촌이 이룩되고 어항관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UR에 따른 국제 무역여건 변화로 외국의 수산물수입개방과 가격경쟁면에서 국내수산물보다 싼 외국수산물이 다량으로 수입되면서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어촌의 현실을 감안,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원 개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과 투자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바다를 살리고 살기좋은 어촌을 건설하고 바다의 관문인 모든 어항을 쾌적하고 푸르게 가꾸어 나가는데 실효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어항관리 측면에서는 협동조합이 예금업무와 주민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어항관리 단속이나 적발시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많고, 행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당국에서 관리하여 모든 어항관계 업무를 주관해야 한다.

특히 고객관리 차원에서도 파격적인 감동서비스만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대응책으로 행정당국에서 감독 및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제1종 어항에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수산청 감독관을 상주시켜 어항을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되며 금후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어민 의식구조개선으로 환경오염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선진국민으로서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야 하겠다.

그때 비로소 건전하고 살기 좋은 어촌사회가 조성되리라 확신한다.

어촌지역의 생활여건이란 도시와 비교할 때 매우 낙후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어업종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과소화 고령화되는 상태에서 활력의 저하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인들에게는 매우 좋은 자연경관의 운치를 어항의 장소에서 접하는 장기적인 이용도가 크게 요청되는 바, 어항의 생활도로나 녹지·광장등 부대기능시설을 신설, 어항해양 및 배후 어촌지역의 생활관련시설등을 정비 및 확충함으로써 쾌적하고 운치있는 어항환경을 조성시킬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계획으로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시책이 이룩되도록 정부의 배려와 수산유관기

관이 어항가꾸기운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위치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바다를 살리고 어항을 가꾸는데 총력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어민의 소득원인 바다를 간척사업등으로 매립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하겠으며 농민의 쌀이 남아도는데 바다를 매립한다는 건 어민에게는 생업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끝으로 전국 어민이나 수산관계인 아니 전 국민적으로 어항관리의 철저와 바다오염방지등 어항을 가꾸고 더욱 푸르게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

기획특집

어항관리

관리소홀피해 어민이 제일 커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형구

〈강구수협 조합장〉

어항 시설물 하나 하나가 내 것이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파손 및 오염되지 않도록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자연이 우리 선조에게
내려준 어항을 깨끗하게 이용하고 깨끗하게
물려 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어항이란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항해하고 어로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선박들에게